

저희 스미스채플 교회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고 성경적 거룩함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아낌없이 사랑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성경적 거룩함 속에서 자라나는 사람들, 바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온 땅에 번성(multiply)하는 꿈이 있습니다.

알리는 말씀

1. 오늘 스미스채플 **한국어 예배** 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으로 인한 감사가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2. 오늘부터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복되고 소망으로 가득찬 믿음의 계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3. 다음주는 광야예배 사역, 그 다음주는 구역회로 인해 한국어 예배가 따로 없을 예정입니다. 매일의 삶이 거룩한 예배가 되시길 바라며, 12/21 일 주일에 다시 공예배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4. **예배당 건물이 현재 복원 과정중입니다.** 복원이 완료될 때까지 임시로 사용이 중단되는 점 양해부탁드리며, 신속하고 원활한 복원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아래와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주 화요일에 Flood Smart 에서 예배당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proposal 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지혜와 판단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우리가 함께 분별하고 결정을 이어가는 가운데, 우리 마음에 하나됨과 사랑이 넘치며,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복원 작업의 전체 비용을 하나님께서 친히 공급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5. 스미스채플 한국어 예배는 **함께 세워나가는 예배 및 한 몸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매주 예배 순서를 성도님들이 돌아가면서 맡도록 할 예정입니다. 기도하며 준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로의 부름	대표기도	성경봉독	말씀	성찬위원
11/30	양성심	채영원	강주은	강호	강주혜
12/7			광야예배 in DC		
12/14		*구역회로 인해 한국어 예배가 없을 예정입니다.			
12/21	김연미	김종문	김호연	강호	박미자

6. **속회 모임 안내:** 이번주부터 연말까지 속회 모임을 설 예정입니다. 추후 일정은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미스채플 글로벌 감리교회 그레이트폴스 캠퍼스

한국어 예배

2025 년 11 월 30 일

오후 1 시

This is the
season

This is the
reason



예배로의 부름 Call to Worship

시편 24

양성심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 온 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다. 분명히 주님께서 그 기초를 바다를 정복하여 세우셨고, 강을 정복하여 단단히 세우셨구나.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들어설 수 있느냐?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고, 거짓



선교적 삶! 선교적 가정! 선교적 교회!
스미스채플 글로벌 감리교회

11321 Beach Mill Road, Great Falls, VA 22066. 571-434-9680
www.SmithChapelGMC.org/in-Great-Falls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주님을 찾는 사람ियो,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뉘시냐? 힘이 세고 용맹하신
주님이시다. 전쟁의 용사이신 주님이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뉘시냐? 만군의 주님, 그분이야말로 영광의 왕이시다. **아멘.**

찬송 Hymn

104. 곧 오소서 임마누엘
108. 그 어린주 예수

대표기도 Prayer

채영원

성경 봉독 Scripture

하박국 2:1-4강주은

¹ 내가 초소 위에 올라가서 서겠다. 망대 위에 올라가서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려 보겠다. 내가 호소한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기다려 보겠다. ² 주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판에 똑똑히 새겨서,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³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 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⁴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말씀 Sermon

비록 더디더라도... 반드시 온다

강호

말씀 노트:

묵상 질문

1. 하박국 2:4 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은 지금 내 상황에 어떤 의미인가? 내가
지금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2. 내 삶에서 “비록 ____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3. 내 인생의 어떤 부분이 아직 겨울처럼 느껴지는가? 그 겨울 끝자락에서 하나님이
피우고 계신 “매화꽃(작은 변화, 작은 은혜)”은 무엇일까?

묵상 나눔 Reflection Sharing

공동체 소식 Announcements

성찬식 Holy Communion

파송 찬송 Sending off Hymn

105. 오랫동안 기다리던

축도 Benediction

한주도 주님 안에 믿음의 삶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살롬살롬!